

강진교육청,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으로 큰 호응 얻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TaLK 장학생 대상

한국어 구사 능력 확보·협력수업 역량제고

한국문화 대한 이해의 폭 넓히고자 마련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채현)은 지난 21일 관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TaLK 장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본 프로그램은 원어민 교사의 한국어 구사 능력 확보를 통해 협력수업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되었다.

교육과정은 학교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용 대화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듣기·말하

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주 1회, 2시간 연속 운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어 지도에 전문성을 가진 강진중앙초 지희라 문해력 전담교사가 주강사로, 읍면초 김병재 교사가 보조강사로 참여하며, 두 교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동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Kiara는 “초등학생처럼 나이가 어린 학습자의 경우 원어민의 적절한 한국어 구사는 수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협력수업 운영을 위해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싶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한국 생활에 유용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진교육지원청 윤채현 교육장은 “본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해 운영하게 되었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지역 정착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영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원어민 보조교사와 협력교사로 구성된 학교 밖 전문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해 원어민 보조교사의 수업 운영 역량을 높이고 외국어 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양교육청, 마을학교 성과 나눔의 날 행사 개최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정자)은 22일 광양지역 13개 마을학교 교사와 마을교육활동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 광양 마을학교 성과 공유회’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020년 마을학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1년 마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성과 공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어려운 교육환경에 대비해 양방향 화상회의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가상현실색채마을학교(광양시 사라실예솔촌)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는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을 담은 학교교육과정에 마을학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교사와 마을교육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고민을 나누고, 연구할 수 있는 학교밖 전문적학습공동체 조직이 제안되는 등 마을학교 운영 과정에서 느꼈던 고민과 향후 발전방안

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수에 참여한 시누대 마을학교 김철호 대표는 “이번 마을학교 성과 공유회를 통해 다른 마을학교 교사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 교환하며,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새롭게 설치된 양방향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걱정 없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좋았다.”며 행사 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정자 광양교육장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을교육활동가들의 모습에서 감동과 감사함을 느꼈다. 새로운 2021년에도 우리 광양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행사 참석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목포공공도서관, 사서 서평지 8호 발간

그림책·예술·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60여 편의 서평 담아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서부권역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학생 및 지역민들에게 책읽기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2020년 한 해 동안 작성한 서평을 모아 ‘서평지’ 사서가 전하는 책 이야기(제8호)를 발간했다.

‘사서가 전하는 책 이야기(제8호)’에는 그림책, 예술, 역사,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60여 편의 서평을 담았다. 서평도서는 최근 3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로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게 권장할 만한 도서를 선정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올해 사랑받은 전자책 TOP10’과 북큐레이션 ‘집

콕을 위한 취미도서’를 담았다.

서부권역 6개 지역 공공도서관에서는 매월 5-6편의 사서추천도서 서평을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 탑재해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도록 하고 있다.

서부권역 공공도서관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으로 중심도서관인 목포공공도서관(관장 황성규), 영광공공도서관, 무안공공도서관, 진도공공도서관, 함평공공도서관, 해남공공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기별 서부권역 공공도서관협의회를 통하여 코로나시대 이용자 비대면서비스 협력과 도서관 운영 방안에 관해 활발한 논의



를 펼치며 지역민에게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포공공도서관 관계자는 “사서 서평지 ‘사서가 전하는 책 이야기’가 사서들의 서평 쓰기 역량 강화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천한 책 서평들이 지역민들의 독서생활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목포=박정수기자

광주시교육청,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

2021년 1월5~6일 대면·비대면 방식 병행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오는 2021년 1월5-6일 1·2차로 나눠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 학교는 총 153개교(국립 1교, 공립 149교, 사립 3교)이며, 취학 대상자는 2014년에 출생한 적령아동과 조기입학을 신청한 2015년생 아동, 전년도 취학 유예 아동 등 1만3,580여 명이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을 원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정한 절차(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학교 내 접수함 등)에 따라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예비소집 제출서류는 취학통지서,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증명서(비대면 참여시 아동 소재 확인 증명서류), 그 밖에 학교별 요구 서류 등이다. 비대면으로 예비소집 참여를 희망하

는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재원증명서를 예비소집 기간에 학교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 일정 및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조정되거나 상이할 수 있다”며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인호기자

